

지역과 교육이 함께 상생하는 목포교육 위한 첫걸음 내딛어

목포시의회 의원들 상대로 최초로 '목포교육 2021 설명회' 개최

지역사회-학교 상호협력체제 구축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 피력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2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시 의원과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교육 2021 설명회를 개최하

였다. 이번 설명회는 목포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목포시의회 의원들을 상대

로 최초로 개최된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김갑수 목포교육장은 목포교육 2021과 함께 '원도심학교 학

신모델 개발', '내 집앞 돌봄교실'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꿈키움센터' 유치 등 목포교육지원청의 주요 교육현안을 설명하고 목포시의회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은 '교육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목포교육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앞서 김갑수 교육장은 1월 28일 박창수 의장을 비롯한 총 7명의 목포시의원 사무실을 각각 방문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역 사회와 학교와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의원들과 모색하였다. 김갑수 목포교육장은 목포시의회뿐만 아니라 목포시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업체계로 교육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목포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고흥 마을학교, 학교 학부모회 성공사례 제시

지역밀착형 마을학교 중 4곳 해당 지역 학교 학부모회 주축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희)은 2일 고흥 마을학교 운영기관 공모 심사 결과 9개의 마을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학교는 고흥군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형 마을학교인 고흥은마을과 고우리, 지역밀착형 마을학교인 꿈터(동일면), 남양하하(남양면), 늘사랑(두원면), 우주로야구(고흥읍), 과역봄장(과역면), 봉래아피(봉래면), 행복한마을학교(도양읍)이다. 특히, 지역밀착형 마을학교 중 4곳이 해당 지역 학교 학부모회가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마을학교를 만들었

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꿈터는 2017년 3명의 학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2명의 아이를 위해 시작하여 현재 백양초-중에서 주 1시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만큼 성장했다. 남양하하는 2019년에 남양초-중 학부모 10명이 의기투합하여 시작했다. '학부모 동화책 읽어주기' 참여 회원을 중심으로 남양초 학부모회가 마을학교로 발전한 사례이다. 봉래초 학부모 동아리인 '봉래북아피'와 '아미피카소' 회원들이 책과 그

림을 매개로 마을 주민과 학생들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봉래아피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새로 지정된 행복한마을학교 역시 녹동초-중 학부모회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5명이 지역 아이들을 돌보고 특색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 야심찬 첫발을 내딛는다. 행복한마을학교 김보경 대표는 "마을학교를 통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더욱 섬세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격일등교 등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모두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마을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게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 중심의 마을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마을학교의 모델이다. 공동육아공동체로서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행복한 경험이 축적되면 아이가 마을에서 정주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흥형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맞춤 지원의 뜻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장성공공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

생들의 독서 능력 함양하고 바람직한 독서 습관 형성

장성공공도서관은 2일부터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2월 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독서교실은 '우리 명절과 세시풍속'이

라는 주제로 설, 정월 대보름 등 명절과 세시풍속에 관련된 책들을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된다.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운영된 이번 독서교실은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 이용 교육을 비롯하여 △독서의 즐거움과 글 쓰는 기쁨 △설날 이



야기 △정월 대보름 이야기 등 독서관련 수업과 △제기차기 △쥐불놀이 등의 다양한 전래놀이로 즐거움을 더한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교육청,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및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공모

9일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

광주시교육청이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및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을 공모한다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일까지이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서구 상무변영로 98)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다. 추후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생활규정 위반,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적 심리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상담·치유·교육·학생일시보호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접수 이후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및 지원기관별 예산을 차등해서 선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은 적격여부 심사 이후 심리치료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결과는 오는 22일부터 해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지정 기관별로 유선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조인호기자

전남교육청, 학교업무 정상화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학교교육과정 전환' 당면과제 실현



전남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학교 업무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전남남도교육청은 2일 순천청 소년수련관과 장안창작마을에서 초·

중학교 교감과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2021.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정상화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비대면 온라인학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낀 교사들의 참가신청이 쇄도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과정별 15명 이내(총 30명)로 참가자가 제한됐다. 연수는 '학교업무재구조화를 통한 교원의 업무지원강화' 학생생활중심,

교육활동중심으로서의 학교교육과정 전환'이라는 당면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팀별 실습을 통해 '학교 업무분장안'과 '학교교육계획'에 나타난 교육활동 중에서 교육활동과 다소 연관이 적은 사업을 폐지·축소·통합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업무정상화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토의토론을 통해 체화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의 학교 업무정상화추진계획'과 '강원도교육청의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혁신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정환기자

